法에 막힌 방역패스…백화점·대형마트 일주일만에 해제

광주·전남 34곳 해제 유통가 혼선
광주신세계 전주대비 매출 13%↓
“왜 우리만” 식당·카페 형평성 불만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18일부터 해제되면서 방역패스 확대 도입은 시행 일주일여 만에 끝나게 됐다.

방역당국의 오락가락 지침 탓에 일선에서 크고 작은 혼선이 빚어진 가운데 방역정책의 신뢰도까지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방역패스 적용 해제에 포함되지 않은 식당과 카페 점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7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방역패스 적용이 추가된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는 광주 16곳·전남 18곳이었다. 유형별로 백화점 4곳, 대형마트 21곳이 등이 있다.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되는 시설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이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당초 계획대로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된 대규모 점포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아르바이트 채용으로 임시 방역인력을 늘리며 대응해왔다.

방역패스를 도입한 지난 10~16일 ㈜광주신세계의 매출은 전주보다 13% 감소했다. 유입 고객을 가늠할 수 있는 구매 횟수도 전주보다 14% 감소했다. 이 점포는 방역패스 인증 공간을 10곳으로 늘리며 인력을 29명 보강하고, QR인식기를 6대 늘리기도 했다.

검사 인력을 2배로 늘렸던 광주지역 롯데아울렛 2곳은 일주일 매출이 전주보다 4.3% 떨어졌다.

광주 한 대형점포 관계자는 “방역패스 도입을 대비해 점포당 검사 인력을 평일 4~5명, 주말 7~8명을 더 채용했다”며 “새로 뽑은 인력은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명절을 맞아 다른 업무로 배치하면 되지만 고객이 겪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방역정책이 꼭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설 연휴를 포함한 3주 동안(~2월6일) 사적모임 가능 인원이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늘었지만 ‘밤 9시 영업’과 방역패스가 그대로 적용되는 식당, 카페 점주들은 또다시 망연자실했다.

윤상현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 부장은 “오미크론 확산세를 진정 잡으려 한다면 차라리 모든 업종과 시설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똑같은 방역정책이 시행되야 한다”며 “식당 영업시간 제한의 코로나19 방역효과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방역지침 강행은 음식점 업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처사이다. 음식점에서 추가 주문을 하고 차 한 잔이라도 더 마실 수 있도록 밤 10시까지만이라도 영업 시간을 늘려달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광주·전남지역 음식점 카드 매출은 2조2466억원(광주 9690억원·전남 1조2776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2조3785억원) 보다 5.5%(-1319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가 국내 확산하기 이전인 2019년 1~10월(2조5954억원)에 비해서는 13.4%(-3488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지난 2020년 말 기준 광주·전남 숙박·음식점업 폐업률은 18.4%로, 다른 업종인 도소매(13.7%), 운수·창고(8.5%), 부동산(7.6%), 제조업(7.4%), 건설업(7.3%) 등을 크게 웃돌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설 중소기업 특별자금’ 5천억 운영

2월 25일까지 업체당 최고 30억원… 금리 0.7%P 우대

광주은행이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25일까지 중소기업 특별 융자 5000억원을 편성했다.

중소기업 특별자금대출은 만기연장 2000억원과 신규자금 3000억원으로 구성됐다.

광주은행은 명절을 앞두고 경영자금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된 특별자금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무비나 체불임금 지급, 원자재 구입자금, 긴급 결제자금 등에 쓰인다. 이 기간 동안 만기연장자금 2000억원을 통해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이번 설 특별자금대출의 업체당 지원한도는 최고 30억원 이내로, 금리는 산출금리 대비 최대 0.70% 포인트(P)를 우대한다. 광주은행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실시한 금융지원은 지난해 말 기준 2만7422건, 1조2464억원에 이른다.

송종욱 은행장은 “이번 설 특별자금대출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이익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펼쳐 지역과 상생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농협, 로컬푸드 농가에 토양개량제 지원

탄소배출 줄이고 농약 잔여물 제거 효과…다음달까지 배정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로컬푸드(직거래 농산물) 출하농가에 5억3600만원 상당 토양개량제(바이오차)를 무상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남농협은 올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100개로 늘리며 고품질 로컬푸드 생산 유통·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토양개량제 무상 지원 대상은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는 전남 45개 농·축협들의 출하 농가이다.

숯과 유기물의 혼합체인 바이오차는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거름기를 지속하고 흙 속 중금속·농약 잔여물을 없애는 데 효과적이다.

지원금액은 소속 농가 수에 따라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차등 배정된다. 지원 대상 농가는 로컬푸드 출하회 등록 농가이며, 청년농·고령농·여성농·귀농·유기재배농가 등은 우선 지원된다.

전남농협은 이달 말부터 다음달 중순까지 토양개량제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 전남 시·군 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도 벌인다.

박서홍 전남본부장은 “현안으로 떠오른 탄소중립 농업을 실천하고 로컬푸드 출하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인 소득증대와 농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열독률 호남 1위

광주신세계 ‘친환경 과일바구니’로 설 선물 하세요 17일 ㈜광주신세계 직원이 본관 지하 1층에서 종이와 마 소재로 만들어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과일바구니’를 선보이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이 자체적으로 만든 이 바구니는 1만4000~1만8000원에 살 수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본부세관, 2월4일까지 설연휴 수출입통관 특별지원

신속통관·수출화물 선적 등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설 명절 연휴기간 수출입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세관은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과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4일까지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또 수출화물 선적의무기간(1개월)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신청을 처리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는 28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도 운영한다. 이 기간 환급업무처리 마감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하며, 서류심사가 필요하더라도 환급금을 먼저 지급한 뒤 명절 이후 서류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승환 세관장은 “설 명절에도 수출입 통관물류가 원활하게 돌아가 기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중소 수출업체 지원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890.10 (-31.82)
↓	코스닥	957.90 (-13.49)
↑	금리 (국고채 3년)	2.148 (+0.104)
↑	환율 (USD)	1192.70 (+5.40)